

설교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본문) 아 8:6-7

찬송) 337, 391, 442, 446, 585

복음성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아 8:6)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 8:7)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몰약의 즙이 똑똑 떨어지는구나

아가서는 『솔로몬』 과 『솔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의 신랑(新郎) 『예수 그리스도』 와 신부(新婦)인 『교회』 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상징(象徵)하고 있습니다. 『아가(雅歌)』 라는 말은 『최고의 노래(The Song of Songs)』 라는 뜻입니다.

『솔로몬』 과 『솔람미』 는 그 어원(語源)이 비슷합니다. 『솔로몬』 의 어원은 『שְׁלֹמֹן(살롬, 평강, 평화)』 이고 『솔람미』 의 어원(語源)은 『שֹׁלַמִּי(살람, 평화언약을 맺다, 안전하게 만들다)』 입니다.

즉 『솔로몬』 은 평강(平康)의 왕 『예수 그리스도』 를 상징하고 『솔람미』 는 구원(救援) 받아 하나님과 화목(和睦)하게 된 성도를 가리킵니다.

아가서는 『솔람미』 처럼 전혀 자격(資格)이 없는 우리 성도(聖徒)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一方的)인 사랑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절정(絶頂)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솔람미는 예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1:12)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아 1:13)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아 5:13)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똑똑 떨어지는구나

『몰약(沒藥)』과 『나도』기름은 모두 장례(葬禮)에 쓰이는 향품(香品)입니다. 솔로몬과 솔람미는 계속해서 그들의 사랑을 『몰약』 곧 『죽음 같은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 8:6)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죽음 같이 강한 사랑』으로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완전하게 연합(聯合)하십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는 『십자가 복음(福音)의 결정체(結晶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7:10)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 2:16)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는구나

(아 6:3)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 떼를 먹이는도다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에게 속한 이 완전한 연합(聯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 술람미 여인은 매우 곤고(困苦)한 처지(處地)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1:6)에서 술람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1:6)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술람미는 『내 어머니의 아들이』 곧 이복(異腹) 오빠들의 노여움을 사서 온갖 멸시(蔑視)를 받는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할 수 없이 강제노동(強制勞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술람미는 하루 종일 얼굴이 검게 타도록 모든 곳은 일을 혼자서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술람미는 그 일이 너무 과중(過重)하여 홀로 감당(堪當)하기 어려웠다고 고백(告白)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 2:2)은 술람미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묘사합니다. (아 4:8)는 술람미에게 어서 그 『사자 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술람미가 그만큼 곤고(困苦)하고 위험(危險)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곤고(困苦)하고 위험한 처지(處地)에 있었던 『술람미』에게 나타나 이 여인을 구원(救援)하고 함께 애절한 사랑을 나누었던 『솔로몬』 왕(王) 곧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견디기 힘드십니까? 울다가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을 정도로 절망(絶望)하고 계십니까? 술람미를 생각하십시오. 아니 술람미를 구원(救援)하고 그와 함께 그토록 애절한 사랑을 나누었던 주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찬송가 337(3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소
내 대신 짐을 저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 솔람미는 자신이 『게달의 장막』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게달의 장막』은 검은 염소(black goat) 털로 만든 아주 낡은 천막입니다. 솔람미 여인이 그렇게 비천(卑賤)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 솔로몬을 만난 후에 솔람미는 이렇게 그의 사랑을 연모(戀慕)합니다.

(아 1:5)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솔로몬의 휘장』 같이 존귀(尊貴)한 여인! 솔로몬은 한 술 더 떠서 솔람미를 『바로(Pharaoh)의 병거(兵車)의 준마(駿馬)』라고 칭송합니다.

(아 1:9)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Pharaoh)의 병거의 준마』는 애굽 왕 바로(Pharaoh)가 타던 당대(當代) 최고의 말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런 말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 같이 강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신랑(新郎) 『예수 그리스도』는 『게달의 장막』 같은 우리 성도(聖徒)들을 『솔로몬의 휘장』 같이, 『바로(Pharaoh)의 병거(兵車)의 준마(駿馬)』 같이 존귀(尊貴)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 술람미의 일생은 실패한 인생(人生)이었습니다. (아 1:6)에서 술람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한탄(恨歎)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기껏해야 『들 포도』밖에 맺어낼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깊은 고뇌(苦惱)이며 탄식(歎息)입니다. 이사가 선지자는 아담적 실존(實存) 우리 인간의 죄악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사 5:1)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도다

(사 5:2)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나 술람미와 『한 몸』을 이룬 솔로몬은 이렇게 술람미를 사랑하며 위로(慰勞)합니다.

(아 2:15)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 1:6)에서 술람미는 자기 인생을 『나의 포도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포도원을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과 이 여인이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잘 가꾸지 못한 포도원을 솔로몬은 정성스럽게 돌보고 경작하여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실패(失敗)한 『우리 포도원 인생』을 향한 주님의 사랑 메시지(message)입니다.

(아 7:12)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석류 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솔로몬은 말합니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이 아름다운 포도원(葡萄園) 사랑 이야기를 호세아서는 이렇게 설명(說明)하고 있습니다.

(호 2:14)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호 2:15)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호 2:23)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공홀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공홀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불결했던 여인 고멜, 부정(不淨)한 민족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려가신 하나님께서는 그 곳 『광야 교회』에서 이 여인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 칭하시며 『새 포도원』을 주십니다. 저주의 상징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완벽하게 완성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로 되돌려 주십니다.

(아 8:11)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 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아 8:12)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러나 성경은 주님과 우리 성도들의 이 완전한 연합(聯合), 그 『죽음 같은 사랑』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들입니다.

(아 2:15)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요? 에스겔서는 이 『여우』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겔 13:4)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들은 우리의 시선(視線)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固定)시키지 못하도록 속이며 미혹(迷惑)합니다. 우리의 눈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도록 부추기고 또 부추킵니다.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자기의 배만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명합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롬 16:17)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롬 16:18) 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 1:15)은 우리 성도(聖徒)들을 『비둘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 1:15)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의 눈은 시야가 좁고 오직 한 곳만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작은 여우』를 잡고 오직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집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서까래로구나

(아 1:17)은 또한 우리 성도들을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서까래』라고 부릅니다.

(아 1:16)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아 1:17)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서까래로구나

『백향목』과 『잣나무』는 성전(聖殿)을 지을 때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은 향(香)이 강해서 벌레를 막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신랑(新郎)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면 주께서는 우리를 정결한 신부(新婦) 곧 『성전』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眞理)를 에베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엡 2: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엡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엡 2: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엡 2: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 1:16-17)에서 솔로몬은 『우리의 침상』, 『우리 집』이라는 용어(用語)를 사용하며 솔람미와의 『한 몸』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신 주(主) 예수께서는 성도들을 『우리 집』이라고 부르시며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전(聖殿)을 완성(完成)한 것처럼 『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완벽한 『성전』으로 지어가십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의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한 사랑』 곧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주 예수를 바라보는 자, 주 예수와 연합(聯合)한 성도들은 그들의 『예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복음성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복음성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나를 받아주소서